

전국 1만 5천 여 개 취약시설, 해빙기 안전점검

- 4월 2일까지 45일간 고속도로·국도·철도·공항·임대주택 등 전국 시설 집중 점검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겨울철 동결과 해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, 국도, 철도, 공항, 임대주택 등 해빙기(2월~4월) 취약시설*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(2.17~4.2, 45일간)하고 있다.

* 사면, 옹벽, 공동구, 지하차도, 교량, 터널 등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

-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사면붕괴, 지반 침하, 구조물 균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.

-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.

-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도 외에도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(이하 ‘관리주체’)이 관리하는 취약시설 15,32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.

< 분야별 점검 대상 >

(단위 : 개)

합계	사면	옹벽	공동구	지하차도	교량	터널	기타
15,326	7,772	1,223	3	86	225	12	6,005

* 기타(도로, 건설 현장, 배수시설, 하수관 등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)

- 이번 점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과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'24년 대비 점검 대상을 180% 확대(6,827개소 추가) 하였다.
- 또한, 급경사지 붕괴, 터널 내부 도로 침하, 옹벽 균열 현상 등의 주요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.

○ 각 관리주체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·운영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.
도로 및 건축 구조시설, 토질 기초 및 지반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는
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진행한다.

○ 특히, 일반 및 고속국도 구간의 구간별 도로 포장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
점검하기 위해 AI(인공지능) 기반 포장 파손 자동탐지시스템*을 적극
활용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넓은 구간을 신속하고 효율적
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* 차량에 탑재된 장비를 이용해 주행 중 도로 파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해당 데이터를
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 → AI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포장 상태(파손 여부,
위치, 크기)를 판별한 뒤, 이를 토대로 신속한 보수·보강 작업을 수행

□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
하고,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(雨期, 6월 중순 ~ 7월 하순) 전
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“해빙기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
시기인 만큼,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면서,

○ “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물
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문봉섭 (044-201-3768)
		담당자	서기관	이영호 (044-201-3585)

